제1강 『순수이성비판』의 체계와 의도

(1교시)

◆『순수이성비판』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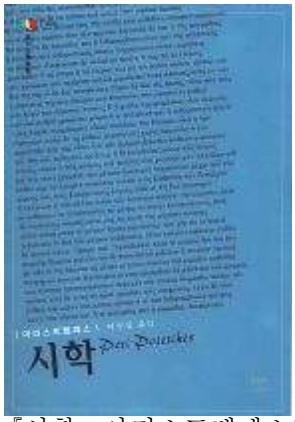
※학습목표: 강의의 성격과 『순수이성비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다.

▲강의의 주제
-경험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주체를 이해한다.
-강의의 핵심은 경험과 시간의 종합, 그리고 주체의 형성이다.

▲주체subject와 종합synthesis
-주체는 '주어지는 것'인가 '형성되는 것'인가? 이 둘의 차이는 시간에 있다.
-'주어졌다'라 할 때 주체는 시간에 관계없이 즉자적으로 있다. 반면 '형성되어 진다'고 할 때 주체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주체가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시간의 종합이란 계기가 들어간다는 뜻이다. 시간이 파편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종합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시간이 종합됨으로써 주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주체가 세계를 인식(혹은 경험)함으로써 주체가 되는 것도 종합이고, 주체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경험을 드라마drâma화하는 것도 종합이다.

▲개체와 종합
-근원적으로 보면 개체자체가 종합의 산물이다.
-물질이 모여 원자, 분자, DNA, 세포 등 무한하고 복잡한 작용을 통해 사물개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사물Thing자체가 이미 종합의 산물이다. 즉 우주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포괄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종합이다.

*참고사항
-종합은 구성, 계열화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시학peri poitiks에서 나타나는 드라마의 구성요소 : 플롯, 성격, 사상, 장경, 노래, 어법



『시학』 아리스토텔레스(청강자의 필기), 이상섭역, 문학과지성사, 2005

www.artnstudy.com

▲종합의 세 가지 층위
-시간의 종합은 여러 차원이 있는데 크게는 물리적 차원, 문화적 차원, 경험적 차원 세 가지다.
-물리적 의미에서 사물자체가 종합이며(자연철학), 문화의 구성도 시간의 종합(문화이론)이며, 경험을 통한 주체형성도 종합이다.
-본 강의에서 주된 층위는 경험을 통한 주체의 형성이다. 이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텍스트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다.

*참고사항
-본 강의에 연장선상에 아트앤스터디의 강의『들뢰즈 철학의 정수:『차이와 반복』 읽기』가 있다. 본 강의와 위의 강의를 함께 연계한다면, 근대적인 주체이론과 현대적인 주체이론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칸트와 들뢰즈의 사이에는 매개로서 헤겔, 니체, 베르그송, 프로이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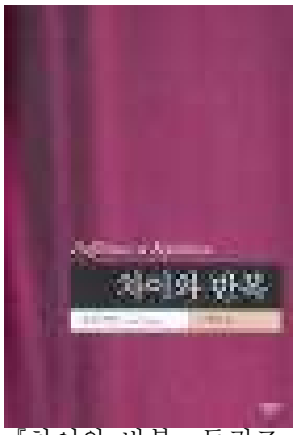
『정신현상학』헤겔, 임석진역, 한길사, 2005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니체, 황문수역, 문예출판사, 2001

www.artnstudy.com

『물질과 기억』베르그송, 박종원역, 아카넷, 2005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프로이트, 김정일역, 열린책들, 2003



『차이와 반복』들뢰즈, 김상환역, 민음사, 2004

▲근대철학의 딜레마와 『순수이성비판』

-근대철학의 딜레마: 세계가 기계론으로 설명된다면 윤리나 종교나 미학은 가능한가? 어떤 위상을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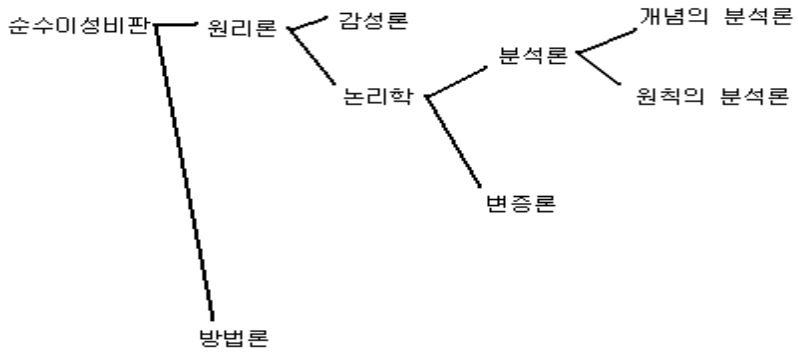
-이 딜레마의 해법 중 하나가 이원론(물리적인 기계론적 차원과 정신·윤리의 가치 차원을 가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와 칸트다.

www.artnstudy.com

-칸트는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순수이성비판』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책이다. 과학적 설명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하고, 그 이상의 차원은 따로 생각해야 함을 밝힌 책이다.

*참고사항
-근대철학에 대한 다른 입장: 유물론은 근대에 발달한 기계론적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메트리). 반면 유심론적 입장도 있다(헤겔).

▲『순수이성비판』의 체계



-가장 크게는 원리론과 방법론으로 나뉜다. 그런데 방법론은 전체의 부록이라 볼 수 있다.
-원리론은 감성론과 논리학으로 나뉜다. 감성론은 감각내지는 지각을 다루는 것이고, 논리학은 사유내지는 개념화를 다루는 것이다.
-논리학은 분석론과 변증론으로 나뉜다. 분석론은 올바른 생각(정당한 사유)이고, 변증론은 틀린 생각(정당하지 않은 사유)다.
-분석론은 개념의 분석론과 원칙의 분석론으로 나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Organon과의 비교
-개념의 분석론은 Organon의 범주론에 해당된다.
-원칙의 분석론은 Organon의 추리론, 분석론이다. [개념의 종합이 판단judgement이다(개=콘셉트, 귀엽다=콘셉트, 개는 귀엽다=판단). 개념들이 모이면 판단을 통해서 명제가 된다. 또 명제와 판단이 모여서 추리가 된다. 이 추리를 다룬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이다.]
-변증론은 Organon의 소피스트논박이다. (틀린, 거짓추론을 다룬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없는 것=감성론, 칸트에게 없는 것=심급론Topica

www.artnstudy.com

(2교시)

◆『순수이성비판』의 의도

※학습목표: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을 쓴 의도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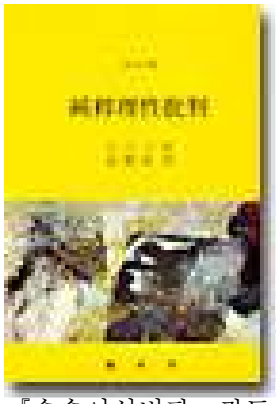
▲『순수이성비판』이 나온 시대 상황

「형이상학이 만학의 여왕이라 불리운 때가 있었다. 의욕을 곧 행동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형이상학은 그 대상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왕이라는 존칭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에 갖은 모욕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야 시대의 유행이 되어서, 형이상학의 노녀는 추방되고 버림을 받아 헤쿠바처럼 탄식하고 있는 중이다.」

-서양의 18세기는 전통이 와해된 시기다. 이 시기에 사물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증가한다. 그 결과 윤리, 종교, 미학, 정치학 등을 떠받치고 있던 형이상학적 원리가 무너진다.

-인식의 발달, 과학의 발달은 항상 형이상학적 문제를 재고하게 만든다. 근대 이후의 학문의 역사는 과학과 형이상학의 투쟁이다. 과학적 환원주의와 그 거부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 근대 이후 학문의 역사다.

*참고사항



『순수이성비판』칸트, 최재희역, 박영사, 2002

▲부정적 의미의 비판kritik

「경쾌한 비둘기는 공중을 자유롭게 헤치고 날아서 공기의 저항을 느끼는 사이에 진공 중에서는 더 잘 날줄로 생각하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감성계가 오성에 대해서 그다지도 많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데아의 날개에 의탁하여 감성계가 떠난 피안에, 즉 순수오성의 진공 중에 감히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자기의 이러한 노력이 아무런 전진도 이루지 못했음을 깨닫지 못했다.」

-경험이 사변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치 진공의 상태면 더 잘 날겠다고 생각한 새처럼 뛰어들어갔다.

-칸트는 우선 형이상학을 비판한다. 안다는 것은 항상 근거를 요구한다. 그런데 전통형이상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근거 댈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했다는 것이다. 즉 전통주의 형이상학자들은 경험에 대한 준거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래서 칸트는 경험주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형이상학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www.artnstudy.com

*참고사항
-19세기 이전의 플라톤의 해석은 피상적이었다. 그래서 칸트는 플라톤을 쉽게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희화화된 플라톤으로 보는 것이 옳다.

▲긍정적 의미의 비판 -1-
-전통형이상학에 대해서 비판하며, 다른 한편으로 과학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음을 밝히게 된다. 즉 경험에 근거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형이상학 이전이다. 칸트는 이를 통해서 경험으로써 알 수 없는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당대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정시킴으로써 당대의 과학과 유물론의 영역을 한정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과 유물론이 형이상학의 영역까지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형이상학을 놓으려는 것이 칸트가 펼치는 비판의 의도이다.

▲긍정적 의미의 비판 -2-
「그런데 도덕은 필연적으로 가장 엄밀한 의미의 자유를 인간 의지의 성지로서 전제한다. 이것은 자유의 전제가 없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근원적인 원칙들, 우리의 이성 중에 있는 실천적인 근원적 원칙들을 도덕이 성립하기 위한 선척적인 여건으로서, 도덕이 인증함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사변이성이 자유는 전혀 생각될 수도 없음을 증명한다고 가정하자. 이때의 전자의 전제 즉 도덕의 전제는 후자[자유]의 가정에 반드시 굴복해야 하고, 따라서 자유와 동시에 도덕은 자연의 기계성을 위해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인간이 자유롭지 않으면 도덕이 설 수 없다. 인간이 물리적 필연성에 의해 지배당한다면 도덕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유가 단지 환상이라면, 도덕은 기계론에게 자유를 내주어야 한다. 즉 가치론적인 모든 행위들은 기계론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도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록 자유라해도 거기에 자유가 없다는 것이요, 따라서 설혹 자유가 통찰[인식]될 필요는 없어도 그것은 적어도 생각되기는 한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자유는 (자연적 기계성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해된다면) 동일한 행위의 자연적 기계성에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덕론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과학론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유의 세계와 기계론의 세계는 별개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대로 현상세계(경험의 세계)를 기계론적으로 설명하고, 도덕은 도덕대로 별개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
「그러나 이런 일은 비판이 미리 「물자체 그것」에 관한 필연적 무지를 가르쳐 주었을 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직 현상에만 제한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순수이성비판이 우리가 경험에 의거하는 한(과학), 물자체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해주어야만 물자체는 기계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인간의 자유와 윤리가 가능하다는 것의 초석이 생긴다. 즉, 『순수이성비판』은 『실천이성비판』으로 가는 복선이다.

*참고사항

www.artnstudy.com

『실천이성비판』 칸트, 백종현, 아카넷, 2002

www.artnstudy.com